

# 天台宗 知禮의 淨土修行觀에 대한 研究

太元(李正模)  
佛敎學科 敎授

지례보다 선배인 曇鸞과 道綽, 그리고 善導 등 순수한 淨土家는 염불을 정토의 근본 수행법으로 삼고, 이 염불 수행에 의해 정토에 왕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지례의 정토수행 사상은 천태종의 智顓의 영향을 받아 염불보다 觀法을 중요시하였고, 이 관법은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本性을 깨닫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이것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觀法이란 『관무량소경』에서 말한 극락세계의 依報와 正報를 觀하는 것으로 이를 圓敎의 不可思議한 妙觀으로 규정했다. 이는 馬鳴菩薩이 지었다는 『기신론』과 天台智顓大師가 지은 『마하지관』과 『유마경현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례는 이 妙觀을 ‘約心觀佛’과 ‘一心三觀’으로 논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례의 이러한 사상을 중점적으로 논한 뒤 결론에서 그의 문하생인 淨覺仁岳과 廣知尙賢 등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논쟁을 일으킨 이유를 살펴보고, 묘관을 주장한 지례 자신은 임종시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무슨 수행을 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 天台宗 知禮의 淨土修行觀에 대한 研究

李太元(正模)  
佛敎學科 敎授

I. 서론

III. 淨土修行觀

II. 지례의 생애

IV. 결론

## I. 서론

중국의 정토교는 후한시대 영제 광화(靈帝光和) 2년인 서기 179년에 지루가참이 『반주삼매경』을 번역한 것을 시초로 하여 뒤에 초기 정토경전인 『평등각경』을 147~186년에 지루가참이 번역했고, 『대아미타경』은 오나라 223~228년에 지겸이 이 번역해냈다. 후기 정토경전인 『무량수경』은 252년에 강승개가, 『무량수여래회』는 706~713년에 보리유지가 번역했고, 『대승무량수자엄경』은 991년에 법현이 번역했으며<sup>1)</sup>, 『관무량수경』은 유송시대에 강량야사가 번역했고<sup>2)</sup>, 『아미타경』은 요진시대에 구마라집이 번역했으며, 『칭찬정토경』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sup>3)</sup>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경에 의해 중국에 정토신앙이 출가자와 재가자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었다.

1) 쯔보이 순애이 저,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p.33

2) 앞의 책, p.331 참고 바람.

3) 앞의 책, p.489 참고 바람.

정토교를 신봉한 사람을 살펴보면, 서진의 무제시대(265~274)에 죽었다는 곁공족과 그의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첫 신자로 나타난 인물이라고 본다.<sup>4)</sup> 그 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동진시대의 慧遠이다. 그는 남방 廬山에서 白蓮結社를 하여 대중과 함께 念佛三昧를 얻기 위해 정진했는데, 주로 『반주삼매경』에 의해 부처님을 친견하고 왕생하는 것을 기약하였다. 이것이 중국 정토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이후 유송시대부터 이 정토신앙은 점차로 중국 각지에 전파되어 『무량수경』을 독송하는 수행이 행해졌고, 이에 수반하여 아미타불상을 조성하고 탱화를 그려 사찰에 모시며 본격적인 정토신앙을 믿고 따랐다.

이에 수반하여 北魏의 宣武帝時代에 보리유지는 친친의 『무량수경우바데사』<sup>6)</sup>를 번역했고, 담란은 이에 대해 註釋을 다는 동시에 용수의 『십주비바사론』의 難易二道說에 의해 他力本願을 주장하여 정토교의 본뜻을 비로소 천명하였다. 이로 인해서 북방 병주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는가 하면, 周나라와 隋나라 시대에는 정토경전 본문 연구가 행해져 혜원·영유·길장·법상 등은 『무량수경』 및 『관무량수경』에 대한 소를 지었고, 또 지의·도작·지엄·가재 등은 각각 정토 사상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책으로 발표하여 佛身과 佛土에 대해 논하여 정토교 사상을 드날렸다. 당시 地論宗 및 다른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토신앙으로 기울어졌다.<sup>7)</sup>

한편 정토를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당나라시대 禪宗에서는 정토를 비방하는가 하면 이를 옹호하려는 淨土家가 나왔다. 한 예로 開元 초기에 혜일은 인도에서 돌아와 당시 선가의 무리가 정토신앙을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方便虛妄說로 보는 견해를 통렬하게 반박하며 焰불왕생의 긴요함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 파를 만들었다. 이것을 승원·법조·비석 등이 계승하여, 焰불삼매가 위없이 깊고 묘한 禪門이 된다면서 참선하는 무리들은 我慢心만 높다고 배척하였다. 이때 참선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에 공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5祖 門下의 宣什과 같은 이들은 南山念佛禪宗이라는 한 파를 창시하였다. 또한 6조 문하의 南陽慧忠은 行解兼修를 주장했으며, 법안종의 적손인 영명연수 시대에 이르러서는 空有相成의 이치를 천명하여 크게 선정쌍수의 중요함을 고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종의 선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송나라 시대에는 天衣義懷·慧林宗本·姑蘇守訥·長蘆宗鑑·黃龍死心·眞歇清了 등은 모두 정토 業을 닦았으며, 또 在家者로는 陽傑·王古·江公望·王闍·王日休 등이 참선과 정토수행을 함께 닦은 것은 그의 유풍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수반하여 천태

4) 『용서증광정토문』, 대정장 47, 266上. 『焰불삼매보왕론』, 대정장 47, 140中. 『법원주립』, 대정장 53, 616中. 중국초기에 焰불을 신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태원 著, 『焰불의 원류와 전개사』, pp.255~270에 열거되어 있음.

5) 여산혜원에 대한 것은 이태원 著, 앞의 책 pp.271~287을 참조할 것.

6) 일명 왕생론이라고 한다.

7)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pp.20~22.

종 안에서 정토에 대한 신앙자가 많이 나와 정토의 뜻을 해석하였다. 그 가운데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사람은 行靖·澄或·義通·源清·文備·遵式·知禮·智圓·仁岳·從義·擇瑛·宗曉 등은 『관무량수경소』와 『아미타경소』 등 다른 정토 관계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지어 교지를 천명하였다. 이 가운데 사명지례의 『觀無量壽經疏妙宗鈔』는 가장 유명한 것으로 그가 주장한 '約心觀佛說'은 일종의 천태사상과 정토사상을 융합한 설로서 옛날부터 천태종 사이에서 중시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례의 정토 수행관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까 한다.

## II. 지례의 생애

지례는 중국의 四明 사람으로 성은 강씨이고 자는 約言이며, 아버지는 經이고 어머니는 이씨로 宋나라 태조 建隆 元年(960)에 태어나 일곱 살 때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울음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례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열다섯 살 때 구족계를 받았다. 오로지 계율에 대한 것만 배웠고, 대평 흥국 4년(979) 나이 스무 살에는 義通을 따라 天台의 教觀을 배워 의통을 대신하여 경을 강의할 정도였다고 하니 지례의 총명함을 엿볼 수 있다. 988년에는 의통이 입적함으로 인해 순화 2년(991)에 청에 의해 乾符寺에 4년간 주석하다가 至道 元年(995)에 保恩院으로 옮겨 살면서 천태사상의 부흥을 기도하였다.

咸平 3년에는 자기가 사는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 慈雲과 더불어 光明巖을 닦으면서 비가 오기를 3일간 기도했지만 비가 오지 않자 한쪽 손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했는데, 참회 행사가 끝나기 전에 큰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지례의 깊은 신심과 修行力을 엿볼 수 있다. 咸平 6년(1003)에는 寂照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가져온 源信<sup>8)</sup>의 問目二十七

8) 天台宗의 승려로 『往生要集』의 저자로 유명하다. 大和國 葛下郡 當麻郷의 卜部正親의 아들로 天慶 5년(942)에 태어났다. 어머니가 高尾寺의 관음보살님께 기도하여 태어났다고 한다. 7세 때에 아버지와 死別하고 延曆寺 浪源座主의 문하에 들어가 13세에 削髮하고 수계하면서 源信이란 이름으로 고쳤다. 15세 때에는 村上天皇의 칙명으로 강사가 된 것을 기뻐하자 어머니는 名利를 바라지 않은 승려가 될 것을 원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대장경을 다섯 번이나 읽고, 天台의 因明, 俱舍學을 배웠다. 空也에게 極樂往生の 道를 묻고 42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심을 겪고 300회 염불하여 왕생케 했다고 한다. 永觀 2년(984) 11월에 『往生要集』을 쓰고, 많은 佛像을 조성하여 38個所에 안치하였다. 그는 이 밖에 『彌陀經略記』·『一乘要訣』·『法要門』·『對俱舍抄』·『因明相違釋』 등 70부 150권이러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寬仁元年(1017)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6월 10일 76세로 입적하였다.

條를 보고 그에 대한 答釋을 했는데 이로써 천태사상에 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교류가 잦았음을 알 수 있다.

大中 祥符 2년(1009) 4월에는 보은원을 낙성했고, 다음 해 10월에는 延慶寺라는 절의 현판을 하사 받았으며, 4년 7월에는 十方傳敎住持의 道場이 되었고, 6년(1013) 2월 연경사에서 처음으로 念佛施戒會를 만들어 매년 이를 수행하였다. 이 회는 이른바 萬人會로서 먼저 발기자 210인을 정하여 한 사람당 48인을 모집하게 했고, 각 사람이 매일 부처님의 명호 천 번을 불러 그 수를 기록하여 매년 2월 15일에는 기록한 것을 손에 들고 절에 모였다. 또한 淨財 四十八文을 각출하게 했고, 사망자가 있으면 그 성명을 가지고 절에 와 그를 위해 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염불을 천 번씩하여 그 사람 죄가 소멸하여 왕생하기를 기원하였다.

大中 祥符 7년(1014) 9월에는 『觀經融心解』를 지어 『一心三觀』을 해석하고 네 가지 정토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天禧 元年(1019) 그는 異聞 등 10인과 함께 3년을 기약하여 法華懺를 수행하고 기한이 차면 몸을 불살라 『법화경』에 공양하여 정토에 왕생하려고 원을 세웠다. 이 소식을 들은 翰林學士 楊億은 그의 道風을 우리러 紫袈裟를 하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찰을 보내어 몸을 불살라 공양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간청했고, 또 군수 李夷庚과 遵式 등이 간절히 그만둘 것을 청하여 마침내 뜻을 바꾸었다.

그는 法智大師라는 휘호를 하사 받은 후 天聖 5년(1027) 12월에 『光明文句記』를 짓고 다음 해(1028) 정월 첫날에 光明懺를 시작하여 5일 동안 결가부좌하고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기를 수백 번 한 후 세수 69세, 法臘 54세로 입적하였다. 세상에서는 그를 四明尊者 또는 사명대사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중국 천태종의 제17조로서 천태종을 중흥한 조사로 받든다.

지례는 평생 강의와 禮懺를 많이 했는데 그가 강의한 내용과 횟수를 살펴보면 『法華玄義』 일곱 번, 『法華文句』 여덟 번, 『摩訶止觀』 여덟 번, 『大般涅槃經疏』 한 번, 『淨明經疏』 두 번, 『金光明經玄疏』 열 번, 『觀音別行玄疏』 일곱 번, 『觀無量壽佛經疏』 일곱 번 등과 이 밖에 金剛鉀 · 止觀義例 · 十不二門 · 始終心要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禮懺는 法華懺를 30일 기약하여 수행하기를 다섯 번, 金剛明懺法을 10일 기약하여 20번, 17일을 기약한 彌陀懺法을 50번, 49일 기약한 請觀音懺를 여덟 번, 21일을 기약한 大悲懺를 열 번, 열 명의 승려와 結社하여 法華懺를 3년, 열 명의 승려를 청하여 大悲懺를 3년간 했다. 또한 세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했는가 하면, 아미타불상 · 관음보살상 · 대세지보살상과 天台祖師像을 20여 구 조성했으며, 天台教乘을 인쇄하고 서사하여 유포한 것이 1만여 권에 달하고, 이 밖에 사찰과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의 저술 또한 아주 많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만을 열거하면, 『金光明經文句記』 6권 · 『觀音玄疏記』 4권 · 『十不二門指要鈔』 2권 등 무려 20여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정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觀無量壽經疏妙宗鈔』 6권과 『觀無量壽經融心解』 1권이 있다. 그 중

『묘종초』는 천태의 『관경소』를 상세히 해석한 것으로 천희 5년(1021)에 찬술한 것으로 그가 말년에 남긴 역작으로 손꼽힌다.<sup>9)</sup> 대개 천태의 『관경소』는 智顓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당나라 때 그를 좋아한 사람이 擬托했다는 것이 오늘날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통을 비롯하여 행정·원청 등은 다 이를 믿고 그에 대한 解釋書를 지었고, 지금 지례도 이에 대해 자세히 해석하여 그 글의 뜻을 기초로 하여 約心觀佛의 새로운 설을 주장하였다. 天台智顓 『관경소』는 그가 쓴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天台宗에서 나온 책이 분명하므로 천태종에서 본 淨土觀과 같다고 본다. 또 지례가 이 책을 근거로 정토사상을 피력한 것은 지례의 평생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정토수행관은 그의 본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묘종초』를 근거로 하여 그의 정토수행관을 다룰까 한다.

### Ⅲ. 淨土修行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례의 정토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觀無量壽經疏妙宗鈔』 6권이다. 이 책은 그가 입적하기 7년 전인 천희 5년(1021),<sup>10)</sup> 즉 그가 인생 말년에 찬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사상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廻向思想을 엿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법화경』을 위주로 한 천태종의 中興祖이지만 입적하기 전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수백 번 불러 회향한 것은 天台敎學을 연구한 敎學者이면서 신앙은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염불 수행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례는 이 책 1권 서두에서 天台智者大師가 『관무량수경소』를 지으신 것은 진실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정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이 정토사상이 시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중생들로 하여금 妙觀으로 마음을 닦아 네 가지 정토<sup>11)</sup>를 感得케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례는 천태의 이 깊은 원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卽心念佛』, 혹은 『約心觀佛』을 주장하기 위해 天台의 疏를 해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의 정토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그는 『관경』에서 설한 16관법을 “圓敎의 不可思議한 妙觀을 밝힌 것으로 이

9) 지례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佛祖統紀』 권 제8(대정장 49, 191下~194中), 『불교대사전』(望月信亨 著), pp. 3739~3940, 이태원 譯, 『중국정토교리사』(望月信亨 著), pp. 347~348.

10) 天禧五年 歲在辛酉 重陰陽日下筆故序(대정장 37, 195上)

11) 凡聖同居土·方便有餘土·實報無障礙土·常寂光土 등이다.

12) 대정장 37, 195上.

13) “觀彼依正 依正可彰託彼依正觀於心性 心性易發”(앞의 책, 195中)

것은 즉 극락세계의 依報와 正報의 경계에 의지해 心性을 觀하면 心性을 나타내기 쉽다.”<sup>13)</sup> 고 설하였다. 이것은 觀法에 의지하여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心性을 깨닫는 것으로 『約心觀佛說』이다.

그러면 먼저 지례의 心性觀에 대해 알아보자. 지례는 『묘중초』에서,

중생의 性德인 부처는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며, 因도 아니고 果도 아니며, 즉 圓常大覺의 體다.<sup>14)</sup>

라고 하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性德 그 자체를 부처로 보고, 이 부처는 能所와 因果가 끊어진 원만하고 항상 존재하는 ‘大覺의 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신론』<sup>15)</sup>의 “覺의 뜻이란 즉 마음의 근본으로 마음을 여윈 염[離念]이다. 이 離念의 相은 虛空界와 같아 두루하지 못할 곳이 없으며, 법계는 하나의 모습이면서 그것이 곧 여래의 常住法身이니, 이 法身에 의해 本覺이라고 부른다.”<sup>16)</sup>는 설을 인용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소유하고 있는 眞如를 말하는 것으로 『기신론』에서 “心性이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데, 일체 모든 법은 오직 妄念에 의해 차별이 있다. 만약 妄念을 여의기만 하면 일체 경계의 모습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一切法은 본래부터 言說의 모습을 여의었으며 名字의 모습을 여의었고, 마음으로 반연하는 모습을 여의어 필경에는 평등하여 변하고 달라짐이 없어 파괴할 수도 없다. 이것은 오직 이 一心이기 때문에 眞如라고 한다.”<sup>17)</sup>는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아 心性觀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례는 心性에 대해,

말한 바 心性이 일체법을 갖추고 일체법을 짓는다고 한 것은 실로 능히 갖추어야 할 주체도 없고 갖출 대상도 없으며, 능히 지어야 할 주체도 없고 지을 대상도 없는 것으로, 곧 이 마음이 법이며, 법이 이 마음이다. 능히 지어야 할 인연 및 지어야 할 법이 다 이 心性이다.<sup>18)</sup>

라고 하여 心性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짓는 주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어야 할 대상도 없는 能所가 끊어진 상태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신라시대 원효의 저서 『兩卷無量壽經宗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생의 心性은 融通하여 걸림이 없어 크기는 허공과 같고 맑기는 큰 바다와 같다. 虛空과

14) “所謂衆生性德之佛 非自非他 非因非果 卽時圓常大覺之體”(앞의 책, 195上)

15) 대정장 32, 576中.

16) 常住法身이 대정장 본문에 平等法身으로 되어 있다.(대정장 37, 195上)

17) 대정장 32, 576上.

18) 대정장 37, 195中.

같기 때문에 그 體는 평등하여 차별의 모습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어찌 깨끗하고 더러운 곳이 있겠는가.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 성품은 물처럼 부드럽고 적시어 반연을 따르는 데 거스르지 않으니, 어찌 움직이고 고요한 때가 있으리오. 혹은 塵風에 의해 五濁<sup>19)</sup>에 빠지어 윤회하면서 깊은 고통의 바다에 오랫동안 흐르고, 혹은 善根을 입어 四流<sup>20)</sup>를 끊고 돌아오지 않고 피안에 이르러 영원히 고요하다. 이와 같이 움직이고 고요한 것은 큰 꿈에 불과 하다. 깨달음에서 말하면 彼가 없어 淨土와 穢土가 본래 一心이다. 云云<sup>21)</sup>

이는 『기신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례와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 원효는 이 一心이 動寂이 끊어진 상태인 줄 알려고 한다면 善根을 부지런히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계에서 五惡<sup>22)</sup>을 훈계하시고, 아미타불은 안양의 세계에 계시면서 三輩<sup>23)</sup>에 태어나도록 인도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지례와 같은 사상으로, 순수한 淨土家가 아니라도 정도수행을 한 사람이 중국과 한국에 많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지례의 관법은 어떤 것인가를 규명해보자. 이렇게 『기신론』의 영향을 받은 지례는 眞如인 一心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하는데 『관경』에서 실한 열여섯 가지 觀法으로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즉 觀法은 圓敎의 不可思議한 妙觀을 밝힌 것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관무량수경』의 위치를 높이 본 것으로 觀法이 성불하는 지름길이고, 이 관법에 의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心性인 眞如를 통달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이다.

천태(538~597)<sup>24)</sup>가 『觀無量壽經疏』에서 “이 관경은 마음으로 관하는 것을 宗으로 삼

19) 劫濁·見濁·煩惱濁·衆生濁·命濁 등이다.

20) 欲爆流·見爆流·有爆流·無明爆流 등이다.

21) 대정장 37, 125下.

22) 殺生·偷盜·淫行·妄語·飲酒 등 다섯 가지를 하지 않는 것.

23) 上輩·中輩·下輩 등이다.

24) 중국 수나라시대의 승려로 천태종을 開祖한 사람이다. 18세에 상주 과원사 法緒에게 출가했고, 惠曠에게 律學과 大乘敎를 배웠으며, 560년 대소산에 들어가 慧思에게 心觀의 수행법을 이어받고, 38세에 천태산에 들어가 수선사를 창건하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일하여 천태종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천태산 석성사에서 나이 60세로 입적하였다. 그는 『法華玄義』·『法華文句』·『摩訶止觀』·『觀音玄義』·『金光明玄義』·『金光明文句』·『觀無量壽經疏』 등 30여 부의 많은 책을 저술한 대학자이다.

25) “此經心觀爲宗 實相爲體 所言佛說無量壽佛者 佛是所觀勝境 舉正報以收依果云云”(대정장 37, 186下)

26) 空觀·假觀·中觀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一心妄心 위에 三諦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동시에 관하는 방법이다. 즉 空諦·假諦·中諦는 서로 다른 것에 관계없는 但空·但假·但中이라 하지 않고, 이 셋이 서로 圓融無礙한 것이라 하여, 이것은 卽空·卽假·卽中이라 관하는 것이다. 이것을 천태종의 정의로 삼는다.



고, 實相을 體로 삼는다. 말씀하신 佛說觀無量壽의 佛은 이 所觀의 殊勝한 경계이다.”<sup>25)</sup>라고 한 것을 지레는 能觀과 所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能觀을 ‘一心三觀’<sup>26)</sup>이라 하고 所觀은 ‘三諦’<sup>27)</sup>—境이라 하였다. 이 ‘一心三觀’이란 일심으로 空<sup>28)</sup>·假<sup>29)</sup>·中<sup>30)</sup> 세 가지를 관하는 수행법인데 이것을 ‘圓融三觀’이라고도 하며, ‘不可思議三觀’, 혹은 ‘不次第三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본래 천태가 지은 『마하지관』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하나의 修行方法이다. 『마하지관』에서,

만약 法性이 無明과 함하여 一切法과 陰界 등이 있다면 곧 이것은 俗諦이며, 一切界와 入이 이것이 하나의 法界라면 바로 이것은 眞諦다. 하나도 아니고 일체도 아닌 이것은 中道第一義諦가 된다. 이와 같이 널리 一切法에 두루한 것에는 不思議한 三諦가 아닌 것이 없다. 云云, 만약 一法이 一切法이라 하면 이것은 인연으로 생긴 법으로 假名이 되며 假觀이다. 만약 一切法이 곧 一法이라면 ‘나는 바로 곧 이것이 空이라고 설한다’는 空觀이다. 만약 하나도 아니고 일체도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이것은 中道觀이다. 하나의 空이 一切의 空이라면 假이면서도 中으로 空 아닌 것이 없으면 모두 空觀이고, 하나의 假가 一切의 假라면 空이면서도 中으로 假 아닌 것이 없으면 모두 假觀이며, 하나의 中이 一切의 中이라면 空이면서도 假로 中 아닌 것이 없으면 모두 中觀이다. 즉 中論에서 설한 不可思議 一心三觀이다.<sup>31)</sup>

라고 하였고, 『유마경현소』에서는,

一心三觀을 밝히면 바로 이 圓敎의 利根 보살들이 修習할 곳이다. 왜냐하면 不思議한 마음의 이치는 甚深하고 微妙하여 그 觀慧의 문은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이제 이 一心三觀을 세 가지 뜻으로 밝힌다. 첫째는 觀하는 대상의 不思議한 경계를 밝히고, 둘째는 能觀인 三觀을 밝히며, 셋째 證得하여 성취하는 것을 밝힌다. 첫째 不思議한 觀하는 경계를 밝힌다는

27) 모든 존재는 집착하는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空無한 존재인 것을 空諦라 하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 얼마 동안 존재하는 것을 假諦라 하며, 모든 존재는 일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空과 假를 넘어선 절대적 것으로 그 본체는 言說思慮의 대상이 아닌 것을 中諦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三諦란 觀해야 할 객관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28) 空觀으로, 모든 존재는 집착하는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空無한 법인 空諦를 관하는 것.

29) 假觀으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 일어나 얼마 동안 거것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법인 假諦를 관하는 것.

30) 中觀으로, 모든 존재는 일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空과 假를 넘어선 절대적 것으로 그 본체는 言說思慮의 대상이 아닌 법인 中諦를 관하는 것.

31) 대정장 46, 55中.

것은 一念 無明의 마음이 인연으로 생기는 十法界로 경계를 삼는다. ……中略…… 둘째 能觀을 설명하면, 만약 이 一念 無明의 마음이 空도 아니고 假도 아니라고 관하여 일체 모든 법 또한 空과 假가 아니며, 더욱이 능히 마음의 空과 假를 알면 즉 일체 법이 空과 假임을 비추는 것이다. 이것이 一心三觀이 원만히 비추는 三諦의 이치로 癡愛를 끊지 않고 모든 明脫<sup>32)</sup>을 일으킨다. 만일 물이 깨끗하면 구슬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이것이 觀行에 卽한 것이다. 셋째 증득하여 성취한다는 것은 一心三觀을 證得하면 곧 이 一心이 三智,<sup>33)</sup> 五眼<sup>34)</sup>이다.<sup>35)</sup>

라고 한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한 一心이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미약한 妄心으로 이것은 時時刻刻 우리들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이 妄心 그대르가 '空' 이고, '假' 이고 '中' 이라고 관하는 법이다.<sup>36)</sup> 다시 말하면 이 미약한 妄心 그대르가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고 觀想하는 一心三觀의 수행법으로 속히 성불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례가 천태의 영향을 받아 주장한 것으로 본다.

또 天台가 “三諦의 이치를 믿는 이것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어머니이고, 능히 모든 十力과 無畏解脫三昧를 생기게 한다.”<sup>37)</sup>라고 하고, 또한 “一心三觀을 一切種智”<sup>38)</sup>라고 하였으며, 三諦에 대해서는 “卽空卽假卽中不思議三諦”<sup>39)</sup>라 한 것으로 미루어 얼마나 三觀을 중요시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천태에게 ‘一心三觀’의 영향을 준 것은 그가 말한 대로 용수보살이 지은 『中論』<sup>40)</sup>이라고 생각한다. 천태의 영향을 받은 지례가 이 空·假·中이 주관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一心三觀’이라 하고, 주관적인 마음이 觀해야 할 대상을 ‘三諦一境’이라 분류한 것은 천태의 학설을 그대로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례의 학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心觀이다. 이 心觀의 중요성이란 우리들의 일심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德性を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관하면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제 일심으로 아미타불과 극락정토를 관하는 攀緣에 의해 우리들의 심성에 薰習되면 우리들의 심성에 갖추어진 아미타불과 극락정토가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발전하여 후대에 自性彌陀니 自性淨土니 하는 사상이 등장했다고 본다.

32) 愚癡를 여의는 것을 明이라 하고, 貪愛를 여의는 것을 脫이라 한다.

33) 첫째 보살이 중생들을 교화할 때 世間·出世間·有漏·無漏의 도를 말하는 지혜를 道種智라 하고, 둘째 모든 법의 총체적 모양을 아는 지혜를 一切智라 하며, 셋째 모든 존재에 대하여 평등한 처지에서 다시 차별의 相을 세밀히 아는 지혜를 一切種智라 한다.

34) 肉眼·天眼·慧眼·法眼·佛眼 등이다.

35) 대정장 38, 528下~529上.

36) 대정장 46, 84下.

37) “信三諦理是三世佛母. 能生一切十力無畏解脫三昧”(대정장 46, 89中)

38) 앞의 책, 84中.

39) 위 註와 동일.

40) 즉 “中論에서 설한 不可思議 一心三觀이다.”라고 하였다.(대정장 46, 55中)

그러면 여기서 觀해야 할 대상으로 正報인 아미타불과 依報인 극락정토에 대해 지례의 생각을 살펴보자. 먼저 아미타불의 성불에 대해,

一心三觀의 의해 三身を 이루신 것으로 化主<sup>41)</sup>도 그렇게 하였고, 聖衆<sup>42)</sup>들도 그렇게 하였다. 正報가 妙한데 어찌 依報가 거칠겠는가!<sup>43)</sup>

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미타불도 一心三觀에 의해 성불했다는 뜻이며, 극락세계에 있는 대중들도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일심삼관으로 정토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여기서 法藏比丘가 아미타불이 된 것을 『무량수경』에서 48원을 세워 수행하여 성불했다고 설한 것과 달리 一心三觀으로 보는 견해는 억지로 천태사상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례는 아미타불을 別教로 보면 報身이고, 圓教로 보면 法身이라 하여 중국의 정토가인 도작<sup>44)</sup>이 아미타불을 단순히 報身으로 보는 것과는 생각을 달리했다. 그리고 『관경』에서 말씀하신 팔만 사천 상호를 갖춘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말한 華藏世界<sup>45)</sup>에서 여러 가지 상호를 갖춘 부처님보다 수승하며 오직 圓頓性<sup>46)</sup>을 갖추었다<sup>47)</sup>고 한 것은 아미타불을 한 층 더 높이 평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례가 아미타불을 別教와 圓教에서 다르게 본 것은 학자 입장을 밝힌 것이며, 아미타불을 여러 가지 상호를 갖춘 蓮華藏世界의 부처님보다 수승하다고 높이 평가한 것은 부처님을 차별해서 두는 것으로 천태종 승려답지 않는 견해다. 이것은 아마도 정토 수행자의 깊은 신심을 한 부처님께 두도록 하기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아미타불과 모든 부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융합한다고 전제하고, 아미타불의 몸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몸이고, 모든 부처님의 모습이 밝은 것은 곧 아미타불의 體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몸이 밝게 되는 것은 미타를 관찰하는 觀體<sup>48)</sup>라고 하였다.

41) 아미타불을 교화하는 주인으로 봄.

42) 극락세계에 있는 대중들을 말함.

43) 대정장 37, 206中.

44) 도작은 담란이 입적한 지 20년 뒤인 562년 담란과 같은 并州汶水 지방에서 태어나 14세에 출가하여 『대반열반경』을 연구하여 24번이나 강설하고, 605~617년 사이에는 石壁谷 현충사에 가서 담란의 碑文을 보고 감동하여 涅槃宗을 버리고 淨土門에 들어가 날마다 7만 번씩 부처님 명호를 불렀다. 그는 645년 84세로 현충사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안락집』 2권이 있다.

45) 연화장세계의 略稱.

46) 여기서 말한 圓頓이란 圓滿頓足的 뜻으로서 때문에 아마도 이 뜻은 모든 것을 결함 없이 원만하게 갖추어 한 번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성품을 말한다고 본다.

47) 앞의 책, 223中, 226下.

48) “又復彌陀與一切佛 一身一智應用亦然 彌陀身顯即諸佛身 諸佛相明即彌陀體 是故汎明生諸 佛身以爲觀察 彌陀觀體云云”(앞의 책, p.220a)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관찰 줄 알아야 한다. 마음으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지으면 어찌 彌陀를 感得하지 못하며, 마음으로 항상 諸佛에 相即하면 어찌 彌陀에 相即하지 못하겠는가! 마땅히 알라. 彌陀와 諸佛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며, 諸佛은 하나에 相即한 多이며 미타는 多에 相即한 하나다. 일심으로 저 부처님을 繫念하고 諦觀하는 것은 곧 一心三觀이다.<sup>49)</sup>

이것은 아미타불을 관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을 관하는 것이고,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은 一心三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依報인 정도에 대해서는 凡聖同居土·方便有餘土·實報無障礙土·常寂光土가 있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凡聖同居土는 上品의 土라고 하였다. 그러나 네 가지 국토에 다 橫豎가 있고, 同居土 한 곳을 實報土로 보고, 寂光土로 보며, 方便土로 볼 수가 있으니, 一心三觀으로 妙觀을 수행하면 이 네 가지 정도를 感得할 수가 있다고 하여 여기서도 一心三觀의 妙觀을 강조하고 있다.<sup>50)</sup>

중국에서 淨土를 처음 분류한 사람은 淨影寺 慧遠(52~592)<sup>51)</sup>이 아님이 생각한다. 그는 『대승의장』에서 정도를 事淨·相淨·眞淨 등 세 종류로 나누었고, 이 가운데 범부가 거주하는 국토를 事淨, 聲聞과 緣覺 및 보살들이 거주하는 국토를 相淨, 초지보살부터 모든 부처님이 거주하는 국토를 眞淨으로 보았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논하면 事淨 가운데 天人들이 거주하는 모든 하늘과 아미타불 극락세계와 같이 범부들이 태어나는 정도로 나누었고, 相淨을 성문과 연각이 自利의 善根으로 얻은 국토와 모든 보살들이 남을 교화하기 위한 善根으로 얻은 국토로 나누었다. 전자는 용수보살이 말한 三界를 벗어난 妙土와 같은 것이고, 후자는 維摩居士가 말한 丈室<sup>52)</sup>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眞淨 가운데 地上菩薩이 거주하는 곳은 畷을 여윈 眞이고, 모든 부처님이 거주하는 국토는 純淨의 眞이라고 하였다.

49) “知可即心而觀彌陀 心尚能作諸佛 豈不感於彌陀 心尚即是諸佛 豈不即是彌陀 應知彌陀與一切佛 不多不少 諸佛乃即一之多 彌陀乃即多之一 一心繫念諦觀彼佛者 即 一心三觀也”(앞의 책, 220下)

50) 앞의 책, 210下~211下.

51) 중국 수나라 승려로 13세에 출가하여 僧思에게 教를 배우고, 16세에 觀·大隱·光統 등 여러 율사에게 율을 배우는 등 三藏을 통달하였다. 577년 北周 無帝가 불교를 폐지하라는 명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간청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에 들어가 경을 읽고 참선을 하였다. 文帝는 중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려 하였고, 또 慧遠을 위하여 淨影寺를 짓고 法席을 만들어 강설하였다. 그는 정영사에서 역경사업을 주관하다가 70세로 입적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地持疏』 5권, 『十地疏』 10권, 『華嚴疏』 7권, 『大乘義章』 14권, 『無量壽經疏』 2권, 『觀無量壽經疏』 2권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52) 열 자 四方의 방이라는 뜻으로 維摩의 禪室이 사방 1丈이었다는 설에서 유래하였다.

53) 대정장 44, 834上~845中.

다시 純淨의 眞을 眞土와 應土 등 두 가지, 혹은 法性·實報·圓應 등 세 가지 국토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하였다.<sup>53)</sup>

이러한 설을 天台智者가 계승하여 事淨은 凡聖同居土, 相淨은 方便有餘土, 眞淨 가운데 뜻을 여인 眞을 實報無障礙土, 純淨을 常寂光土에 비교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천태의 저술 가운데서 찾아보면, 그가 지은 『觀無量壽佛經疏』에서

네 가지 정토란 凡聖同居土<sup>54)</sup>·方便有餘土<sup>55)</sup>·實報無障礙土<sup>56)</sup>·常寂光土<sup>57)</sup>로 각각 淨穢가 있다<sup>58)</sup>

고 하였고, 『유마경약소』에서,

부처님 국토를 밝히면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차별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無量無邊하지만 이제 간략히 하면 네 가지가 된다. 첫째 染淨國에는 범부와 성인이 함께 거주하고, 둘째 有餘는 方便 사람들이 머물며, 셋째 果報는 오로지 法身만이 거주하는 因多羅網의 장애가 없는 국토이고, 넷째 常寂光은 妙覺이 거주한다. 앞의 두 가지는 應佛이 거주하는 곳이고, 셋째는 應身이고 報身으로 報佛이 거주하는 곳이며, 뒤의 한 가지만이 眞淨으로 應身도 아니고 報身도 아닌 法身만이 거주한다.<sup>59)</sup>

고 하고, 이 네 가지 국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 원효는 그의 저서 『무량수경종요』<sup>60)</sup>에서 정토의 果德을 淨不淨門·色無色門·共不共門·漏無漏門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淨不淨門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가운데 첫째 ‘因果相對門’의 정토는 『인왕경』에서 말한 “三賢과 十聖은 果報土에 머물고,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정토에 거주한

54) 범부와 성자가 함께 섞여 사는 국토로 同居土, 혹은 染淨國이라고도 한다. 이 가운데 극락세계와 같은 곳을 同居淨土라 하고, 사바세계와 같은 곳을 同居雜土라 한다.

55) 方便道인 空觀과 假觀을 수행하여 見惑과 思惑을 끊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方便土라고 하고, 또는 有餘土라 한다. 이곳은 아직 無明煩惱가 남아 있는 곳이다.

56) 眞實法인 中道觀으로 無明을 끊고서 얻는 국토로 實報土, 또는 果報土라 한다. 別教에서는 10地 이상이고, 圓教에서는 十住와 十行·十廻向·十地·等覺·妙覺 등 보살의 국토로 他受用報身を 教主로 한다.

57) 法身如來와 더불어 自受用報身の 국토로 法身佛만이 거주하는 국토다.

58) 앞의 책 188中

59) 대정장 38, 564中.

60) 대정장 37, 126上~中.

61) 十地 가운데 마지막 十地菩薩을 말한 것 같다.

62) 대정장 8, 828上.

다. 일체 중생은 잠시 果報土에 거주하다가 金剛原<sup>61)</sup>에 올라, 정토에 거주한다.”<sup>62)</sup>는 것을 인용하여 法身佛만이 거주하는 곳을 정토라 하였다. 둘째 ‘一向不一向相對門’에서는 천천 보살의 『섭대승론석』<sup>63)</sup>을 인용하여 8地보살부터 부처님까지 거주하는 곳을 정토라 하였으며, 셋째 純雜相對門에서는 『유가사지론』<sup>64)</sup>을 인용하여 凡夫와 聲聞, 그리고 緣覺이 거주하는 곳을 정토라 하지 않고, 오직 大地 즉 歡喜地의 지위에 오른 보살들이 거주하는 곳을 정토라고 하였다. 넷째 ‘正定非正定相對門’에서는 『무량수경』<sup>65)</sup>에서 말한 三聚衆生들에게 고통이 생기는 곳을 穢土라고 하고, 오직 正定聚만이 거주하는 곳을 정토라 하였다.

이것을 천태의 설과 비교하면 인과상대문의 정토는 常寂光土, 一向不一向相對門의 정토는 實報無障礙土, 純雜相對門의 정토는 方便有餘土, 마지막 正定非正定相對門의 정토는 凡聖同居土 가운데 同居淨土를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지례는 천태의 설을 그대로 인용하여 一心三觀에 의해 이 네 가지 국토를 感得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心觀의 결과로 나타난 부처의 圓明한 체는 곧 우리들 범부가 본래 具足한 性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일체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여러 가지 수행법은 모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사천 가지 법문은 우리가 본래 원만히 가지고 있는 本佛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心觀도 이

- 63) “出出世善法功能所生 釋曰二乘善名出世 從八地上乃至佛地 名出出世 出世法爲世法對治 出世法爲出世法對治 功能以四緣爲相 從出出世善法功能 生起此淨土故 不以集諦爲因”(대정장 31, 263中)
- 64) 『當言有差別 彼復有二種 一者清淨 二者不清淨 於清淨世界中 無那落迦傍生俄鬼可得 亦無 欲界色 無色界 亦無苦受可得 純菩薩僧於中止住 是故說名清淨世界 已入第三地菩薩 由願自 在力故 於彼受生 無有異生及非異生聲聞獨覺 若異生菩薩得生於彼”(대정장 30, 736下)
- 65) “其有衆生彼國者 皆悉住於正定之聚 所以者何 彼佛國中無諸邪聚及不定之聚云云”(대정장 12, 272中)
- 66) 『문수반야경』의 설에 의해 90일간 앓은 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한 분의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서 實相만을 觀하고, 일체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一行三昧’라고 한다.(대정장 46, 11上~12上)
- 67) 『반주삼매경』의 설에 따라 90일간 도량 내의 불상 주의를 돌면서 오직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는 수행법으로 이 수행에 의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수행자 앞에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佛立三昧’, 또는 ‘般舟三昧’라고도 한다.(대정장 46, 12上~13上)
- 68) 『대방등다라니경』과 『법화경』에 의한 삼매로 『대방등다라니경』에 의한 삼매를 方等三昧, 『법화경』에 의한 삼매를 法華三昧라 한다. 方等三昧는 7일간, 法華三昧는 21일간을 기한으로 하는데, 이 기간 동안 佛像 주의를 돌면서 염불 수행과 동시에 坐禪도 하는데 사이사이에 禮佛과 懺悔, 그리고 경전을 독송하는 修行法을 하기 때문에 半坐半行 三昧라 한다.(대정장 46, 13上~14中)
- 69)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삼매 이외의 삼매를 말한다. 결국 신체가 행동하는 行住坐臥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것으로 『대품반야경』에 의한 것을 覺意三昧라 한다. 이 삼매에는 모든 경전에 의해 관하는 約諸經觀과 善·惡·無記 등 세 가지 성질을 잡아 관하는 約三性觀 등 두 가지가 있다. 約諸經觀은 『請觀音經義』의 한 대표적인 것으로 善·惡·無記의 三性を 觀하는 것이다.(대정장 46, 14中~16中)

부처를 깨닫기 위해 依報와 正報를 관하는 것이다.

천태가 『마하지관』에서 말한 常坐三昧<sup>66)</sup>·常行三昧<sup>67)</sup>·半行半坐三昧<sup>68)</sup>·非行非坐三昧<sup>69)</sup> 등 네 가지 삼매<sup>70)</sup>가 觀法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모두 부처님을 염하는 것으로, 그 覺體를 나타내려는 것에 있다. 그러기에 지례는 서문에서 “이제 이 『관경』에서 말한 觀法과 般舟三昧는 저 安養世界的 正報와 依報를 의지한 경계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미묘한 관이고, 오로지 아미타불 名號만을 부르는 것은 眞佛의 體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sup>71)</sup> 라고 하였다고 본다. 지례가 네 가지 삼매 가운데 般舟三昧만을 거론하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불 한 부처님만의 名號를 부르는 수행법이기에 때문이다. 아무튼 『관경』에서 말한 관법과 반주삼매 등 모든 수행법이 방법은 다르지만 중생이 본래 갖춘 覺體를 나타내려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心性은 법계에 두루하여 법으로서 짓지 못할 것이 없고, 법으로서 구축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극락세계의 依報인 국토·寶樹·寶地와 아미타불의 정보인 32상 등도 모두 나의 마음 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지은 것으로 모두 마음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저 依報와 正報 등 두 가지 報를 관하는 것은 곧 저 경계에 의지하여 나의 心性을 관하려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 依報와 正報를 관함으로써 그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곧 나의 心性이 저 觀에 熏發된 것으로 그 본래 구축한 本體와 本土가 나타낸 것임에 틀림없다.

『관무량수경』의 제8觀 가운데,

모든 부처님은 이 法界身이시고,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대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32상과 80隨形好이며,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모든 부처님의 正遍知海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집중시켜 자세히 저 부처님의 多陀阿伽度阿羅訶三藐三佛陀를 생각하여 관할지니라.<sup>72)</sup>

는 것에 대해 천태는 제8관 자체를 두루 아미타불을 觀하는 觀行이라 전제하고 나서 法界身을 ‘報佛法性身’ 이라고 해석하면서, 중생들의 마음이 깨끗하면 法身이 自在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신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태양이 百千 강에

70) 智顓의 염불에 대한 것은 본인이 지은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pp. 367~382에 논하였으니 참고 바람.

71) 若此觀門及般舟三昧 託彼安養依正之境 用微妙觀 專就彌陀 顯眞佛體(대정장 37, 195中)

72) 쓰보이 순에이 著,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p.448.

나타나는 것과 같이 32상과 80종호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부처의 몸이 自在하기 때문이라 하고, 이것이 곧 '觀佛三昧'로 '解入相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이 無心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며, 이 삼매로 인해 마음이 마침내 부처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천태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부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관행에 의해 法性身이 나타나는 것을 解入相應이라는 것이 천태의 설이다.<sup>73)</sup>

이러한 천태의 설을 이어받은 지례는 '感應道交'와 '解入相應' 등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첫째 '感應道交'란 '報佛法性身'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함에 응하여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말한 報佛은 始覺이 두루 具足된 것이고, 法性身은 마침내 本覺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報佛과 法性身을 따로 해석하면서 부처님을 '能應', 중생을 '能感'이라 하여 感과 應을 분류하여 부처와 중생을 別體로 해석하였다. 다음 道交를 入義라 하여 부처가 마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解入相應이란 부처님의 體가 觀解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상응한다는 뜻으로 始覺으로 인해 本覺을 알기 때문에 本覺이 始覺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法界身이므로 어떤 곳이든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을 생각하여 觀解를 얻을 때 중생은 저 부처님 몸과 契合하기 때문에 경에서 "생각하는 마음 속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것을 지례는 중생의 體가 곧 부처의 體임을 나타낸 것이라 하여 始覺과 本覺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아미타를 관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應佛이 나타난 것을 感應道交의 뜻이라 하였고, 이 應佛이 나타난 것에 의해서 나의 心性이 밝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며, 저 부처님 몸은 전부 나의 심성에 갖추어진 본래 부처인 것을 비추어 아는 것을 解入相應이라 하였다.<sup>74)</sup> 그리고 감응의 뜻에 의해 他佛에 의지하는 뜻이 성립되고, 解入의 뜻에 의해 唯心の 관이 성립된다고 논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말한 '約心觀佛'이다.<sup>75)</sup>

다음은 염불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례는 염불에 대해서는 純粹淨土家인 도작이나 선도처럼 구체적이고 본원적인 입장에서 논하지 않고 『天台疏』에서처럼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지례는 염불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마음이 모든 부처님이란 이 뜻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마음으로 아미타를 관하고, 마음으로 오히려 모든 부처를 짓는다면 어찌 미타를 感得하지 못하며, 마음이 오히려 곧 이 부처라

73) 대정장 37, 192中.

74) 대정장 3, 220上~中.

75) 이태원 역, 『중국정토교리사』, p.350.



먼저 이 彌陀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알라. 미타와 모든 부처는 多도 아니고 少도 아니며, 諸佛이 곧 一이고 多이며, 미타가 多이고 一이 아니라. 일심으로 저 부처에 대해 생각을 집중시켜 자세히 관하는 것이 一心三觀이다.<sup>76)</sup>

이것은 염불을 一心三觀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觀念적인 염불이고, 염불 자체를 부처를 짓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아미타불 한 부처를 염하는 것이 모든 부처를 염하는 것이라 하여 華嚴法界의 一即多의 입장에서 念을 폭 넓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아미타불 한 부처님만을 염하라는 것은 많은 부처님을 염하면 마음이 산란하기 쉽고 일심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미타 한 경계만을 염하게 한 것이라<sup>77)</sup>고 본다.

그리고 『관경』의 염불을 『반주삼매경』에서 말한 염불로 보았으며,<sup>78)</sup> 『四種三昧』 가운데 두번째는 ‘常行三昧’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天台疏』에서 “念佛衆生攝取不捨”를 해석하기를,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것은 『대지도론』<sup>79)</sup>에서 어미 물고기가 겨우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하신 보호를 받기 때문이며, 『반주삼매경』을 인용하여 염불삼매 수행으로 마땅히 극락정토에 태어난다<sup>80)</sup>고 하는 사상을 받았다고 본다. 다음 ‘十念念佛’에 대해 살펴보자. 이 ‘十念念佛’은 『관무량수경』 下品下生에 나오는 것으로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중생이 착하지 못한 五逆罪와 十惡을 지어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한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나 善知識의 가르침을 만나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十念을 具足하여 나무아미타불의 名號를 부르면 80억겁 생사의 죄가 제거되어 왕생한다.<sup>81)</sup>

이 가운데 나오는 十念을 『天台疏』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善心이 상속하여 十念에 이르는 것이다. 혹 一念을 성취하면 곧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염불로 罪障을 멀히 제거하기 때문에 곧 염불이 勝緣이 된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어찌 왕생할 수 있겠는가.<sup>82)</sup>

76) 대정장 37, 220下.

77) 대정장 37, 202中.

78) “答般舟經云 菩薩用是念佛 故當得生阿彌陀佛國 云云”(대정장 37, 226中)

79) 空·無相·無願에 경지에 들어가신 부처님이 항상 중생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물고기 어미가 알을 항상 염려하기 때문에 살아난다. 만약 염려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물고기가 알을 물이 마르는 겨울이 지날 때까지 품어 죽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대정장 25, 333上)

80) 대정장 37, 192下.

81)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pp.480~481.

즉 천태는 善心の 상속이 十念이고, 一念의 염불이 多劫 동안 지어온 죄업을 소멸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 이것을 勝緣이라 한다며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례는 五逆罪를 지은 사람이 비록 定心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능히 十念佛을 하면서 산란하지 않으면 定心을 성취할 수 있다<sup>83)</sup>고 하여 十念念佛로 인해 定心이 성취되고, 임종시에 용맹한 힘을 얻을 수 있다<sup>84)</sup>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十念에 대해서는 “단 十念 사이에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sup>85)</sup>라고 막연히 말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한 생각 한 생각에 아미타불 명호를 열 번 부르는 稱名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그가 의지한 『天台疏』의 善心과는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또한 지례는 죄악이 무거운 것은 五逆罪보다 더할 것이 없지만 염불하는 힘이 五逆罪의 극히 무거운 三障을 멀해 왕생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五逆罪의 鈍根은 下品下生에 태어나지만 利根은 위 8품에 태어난다고 하여 五逆罪人을 鈍根과 利根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三障은 性이 三德<sup>87)</sup>이고, 五逆의 體는 이 寂光이라고<sup>88)</sup>하여 煩惱가 곧 瞿提라는 사상에서 논하였다. 그리고 지례는 三聚에 대해 이 세계의 博地凡夫는 邪定聚에 속하고, 發心하여 수행했지만 아직 不退轉에 이르지 못하면 不定聚에 속하며, 不退轉을 얻은 사람은 正定聚에 속한다고 하여 오역죄인은 임종시에 十念念佛로 인해 왕생하여 不退轉을 얻기 때문에 正定聚다<sup>89)</sup>고 하였다. 이상으로 보면 十念念佛은 定心을 얻을 뿐만 아니라 不退轉을 얻는 修行法으로 본 것이다.

#### IV. 결론

지례의 정토수행관을 단적으로 말하면 염불보다 觀法을 중요시한 수행법이라 볼 수 있고, 이 觀法은 『관무량소경』에서 말한 것으로 圖敎의 不可思議한 妙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까

82) 대정장 37, 194中.

83) “使臨終善友勸稱十念 定心卽成”(대정장 37, 210下)

84) 대정장 37, 218中.

85) 但十念頃稱彼佛名(대정장37, 218上)

86) 煩惱障·業障·保障 등이다.

87) 智德·斷德·思德 등이다.

88) 대정장 37, 212中.

89) 대정장 37, 210下.

닭은 극락세계의 依報와 正報를 觀함으로써 우리가 본래 갖추어 가지고 있는 心性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馬鳴菩薩이 지었다고 하는 『기신론』과 天台智顓大師가 지은 『마하지관』과 『유마경현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례는 이 妙觀을 約心觀佛과 一心三觀으로 논하였다. 이 수행법은 정토에 往生하기보다는 아미타부처님을 感得함으로 인해 모든 부처님을 感得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례의 문하생인 淨覺仁岳과 廣知尙賢 등 두 사람은 일찍이 서로 다른 논쟁을 일으켰다. 인악은 約心觀佛을 攝佛歸心の 뜻으로 해석하여 부처님을 이주 나의 마음 속에 포섭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을 관하는 觀佛이라고 하였으며, 상현은 이는 攝心歸佛로 마음을 이주 부처님이 계신 곳에 귀의하여 관하는 觀佛이라 하여 서로 상반되는 논쟁을 일으켰다.

이 논쟁에 대해 지례는 두 사람 설이 다 그릇된 것이라고 하고, 부처님을 포섭하여 마음에 귀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포섭하여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도 아니며, 마음에 의해 부처님을 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인악은 이에 불복하여 지례를 등지고 문을 나와 지례의 설에 반박하였는데 이를 주고받는 논쟁은 계속되었다. 이후 懷則은 『정토경관요문』을 지어 인악과 상현의 설을 비판하여 같은 천태종 승려들 사이에서도 觀法에 대한 논쟁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논쟁은 지례가 約心觀佛이라는 정토 수행관을 주장함으로써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례의 설이 그 시대에 얼마나 관심의 초점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례는 임종하기 전 아미타불의 名號를 수백 번 부르면서 入寂했다고 하는데 이는 『관무량수경』의 「下品下生」에서 말한 五逆罪를 지은 사람이라도 十念念佛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불의 本願을 간절히 믿어 왕생을 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 좋을 때는 천태종 敎學의 입장에서 본래 갖추어 가지고 있는 心性을 깨닫기 위한 정토 수행법을 논했지만, 마지막 이 肉身을 버리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할 때는 극락정토에 왕생하려는 뜻이 다분히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는 五逆罪人을 鈍根과 利根으로 나누어 鈍根이 十念念佛하면 下品下生에 태어나고, 利根이 十念念佛하면 上品上生에서부터 下品中生까지 태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연경사에서 念佛施戒會를 만들어 염불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절에 가지고 와 그를 위해 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염불 천 번씩 하여, 그 사람 죄가 소멸되어 왕생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지례의 정토 수행관은 이 생에서는 約心觀佛에 의해 본래 구족한 心性을 깨닫기 위한 것이고, 來生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을 입어 정토에 왕생하는 등 두 가지 목적을 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